

# 대학생의 낙인, 상담에 대한 기대와 상담 추구태도 간의 관계

## The Relations among Stigma, Expectation About Counseling, and Attitude Toward Seeking Counseling in College Students

김정수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상담센터

Jung-Soo Kim(miguell@hanmail.net)

### 요약

본 연구는 낙인이 상담 추구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상담에 대한 기대의 매개역할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327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SPSS 17.0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자기낙인과 사회적 낙인이 상담 추구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상담에 대한 기대와 관련하여서는 자기낙인은 상담에 대한 기대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낸 반면, 사회적 낙인과 상담에 대한 기대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자기낙인과 상담 추구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있어 상담에 대한 기대에 의해 부분 매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낙인과 상담 추구태도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실제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담 추구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각 개인이 지닌 심리·정서적 문제의 인식보다는 개인이 경험하는 자기낙인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중심으로 상담 추구태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개입방법으로서의 상담에 대한 기대를 높일 수 있는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 중심어 : | 자기낙인 | 사회적 낙인 | 상담 추구태도 | 상담에 대한 기대 |

### Abstract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role of expectation about counseling among self-stigma, public stigma and attitude toward seeking counseling.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327 university students and this research investigated some results by using SPSS 17.0.

The major results were as follows: this study reported the negative effects of public stigma and self-stigma on the attitude toward seeking counseling. Self-stigma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regard to expectation for the counseling, on the other hand, expectations about the social stigma and counseling did not show a significant correlation statistically. And this study verified the expectation about counseling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stigma and attitude toward seeking counseling.

The findings of this study provided meaning in that particular search was made for variables that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stigma and attitude toward seeking counseling.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stigma of individual acts effects on using real counseling services than emotional issues with each individual. Finally, this paper suggested the needs of development about the counseling and the education program as a special intervention.

■ keyword : | Self-stigma | Public Stigma | Attitude Toward Seeking Counseling | Expectation About Counseling |

## 1. 서론

최근 들어 상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보편화됨에 따라 개인의 심리적 어려움을 상담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각 대학에서는 학생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전문 상담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재학생들에게 심리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스트레스와 적응, 심리적 어려움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심리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상담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리적 문제에 직면하면,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가족이나 친구들과 같은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원을 활용하고 있을 뿐, 전문적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저조한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심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문 상담서비스를 찾지 않는 현상을 일컬어 ‘서비스 격차(service gap)’라고 부른다[1][2]. 상담 서비스의 도움을 추구하지 않을 경우, 더 심각한 상태 및 문제의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서비스 격차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3]. 이렇듯 다양한 상담서비스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상담 서비스의 접근 용이성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소년들이나 대학생 집단이 상담을 받지 않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 환경의 조성이나 개선 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므로 상담서비스 이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개인의 심리내적 변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사람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도움이나 적절한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의문에 답을 찾기 위한 시도로써 지금까지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4][5]. 여기에서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란 개인이 심리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할 때 상담이나 심리치료 등의 전문적 상담 기관을 찾아 도움을 받는 행동에 대한 태도를 의미한다[6][7]. 일반적으로 상담이나 심리치료와 같은 전문적

도움 추구태도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일 때 실제적으로 상담을 받으러 오는 도움 추구 행동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므로, 실제 전문적 도움 추구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하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적 도움 추구태도를 상담 추구태도로 정의하고, 직접적인 상담 서비스 이용에 대한 태도와 관련한 심리적 변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특히 대학생 시기에는 대학 입학이라는 환경적인 변화를 경험하면서 동시에 그간의 입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신의 일을 결정하고 탐색해야 하는 발달적 과업에 직면하게 되므로, 자신에 대한 기대와 희망 뿐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실제 관련연구들에 의하면, 대학생 시기에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8].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생의 상담 추구태도에 대한 학문적, 실천적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9].

이때 상담 추구태도에 영향을 주는 개인의 심리적 요인으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변인으로 ‘낙인(stigma)’을 꼽을 수 있다. 낙인은 개인의 특성 또는 행동으로 인해 그 개인이 결함이 있다고 주변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10]. 특히 한국 사회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11], 낙인이 상담에 대한 기대와 상담 추구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에서는 상담 추구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서 상담에 대한 기대에 주목한다. 상담에 대한 기대는 그동안 상담에 대한 태도나 의지에 선행하여 이들 변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12].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상담에 대한 태도에만 많은 관심을 기울인 반면, 그러한 태도를 결정하는 상담에 대한 기대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13]. 선행연구를 통해 상담에 대한 기대와 상담 추구태도와의 유의한 관련성이 확인되었고, 또 상담에 대한 기대에 따라서 구체적인 상담 추구태도에 대한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담에 대한 기대는 낙인과 상담 추구 태도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심리적 변인으로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자기 낙인과 사회적 낙인이 각각 상담 추구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상담에 대한 기대가 매개 역할을 하는지 탐색함으로써 실제 상담서비스 이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간 단선적으로 접근하였던 상담 서비스 접근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물리적 환경의 구성에 집중하였던 것에서 벗어나 상담서비스를 받도록 이바지하게 하는 개인 내적 요소를 발견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사회적 낙인, 자기낙인, 상담에 대한 기대와 상담 추구태도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사회적 낙인, 자기낙인과 상담 추구태도간의 관계에서 상담에 대한 기대는 매개 역할을 하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자기낙인, 사회적 낙인과 상담 추구태도

#### 1.1 변인의 정의

‘전문적 도움 추구태도(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란 심리적인 고통 중에 있을 때 상담이나 심리치료 등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는 행동에 대한 태도를 의미한다[14][15]. 여기에서 도움 추구 또는 도움 요청이란 문제나 걱정을 해결함에 있어 도움을 주는 자원을 찾는 과정을 의미한다[9][16].

선행연구들에서는 상담 추구태도와 관련하여 개인의 심리적 변인을 크게 접근 요인과 회피 요인으로 나누어 연구해왔다. 접근 요인은 상담과 같은 전문적인 도움을 추구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인이고, 회피 요인은 이러한 가능성을 억제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요인이다[17]. 선행연구에 따르면 접근 요인보다는 회피 요인이 실제로 상담을 받으려는 결정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결과가 있어 왔다[3][12].

특히 회피 요인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변인은 ‘낙인(stigma)’이다[15]. 여기서 낙인이란 속성과 고

정관련과 관련된 것으로 어떤 사람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연결시킨 표시나 속성으로 정의하기도 한다[18][19].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상담을 추구하지 않거나 혹은 도움을 추구하지만 조력 계획이 완료될 때까지 참여하지 못하고 조기 종결하는 것에 대해서 낙인의 관점에서 관심을 가진 대표적 연구자는 Corrigan[10]이었다[20]. 그에 따르면 낙인은 개인의 특성 또는 행동으로 인해 그 개인이 결함이 있다고 주변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10].

#### 1.2 선행연구의 고찰

본 연구에서는 전문적 도움 추구태도를 상담 추구태도로 정의하고, 직접적인 상담 서비스 이용에 대한 태도와 관련한 심리적 변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기존 선행연구들을 통해 전문적인 도움 추구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요인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대표적으로 상담이나 심리치료와 같은 전문적 도움을 추구하도록 하는 접근 요인과 개인이 전문적인 심리적 도움을 찾지 않게 하는 회피 요인으로 나누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특히 Kushner와 Sher[6][7]은 상담 받을 가능성을 증진시키는 요인과 그러한 결정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정리하여 각각 접근 요인과 회피 요인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Vogel과 Wester[12]의 연구에서는 접근 요인이 상담 추구태도나 행동을 설명하는 변량이 25%미만이라고 설명한 반면, 회피 요인이 실제로 상담을 받으려는 결정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며 회피요인이 접근 요인보다 더 많은 설명 변량(35~40%)이 있다고 하였다. 국내연구에서도 상담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는데 있어 접근 요인보다는 회피 요인이 더 많은 설명 변량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14].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상담서비스에 걸림돌이 되는 회피 요인에 주목하고 회피 요인과 상담 추구태도와의 관련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Corrigan[10]에 따르면 낙인은 개인의 특성 또는 행동으로 인해 그 개인이 결함이 있다고 주변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때 낙인의 영향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Corrigan[10]은 사회적 낙인과 자기 낙

인으로 구분하였다. ‘사회적 낙인(public stigma: social stigma)’은 타인에 의해서 개인이 결함이 있다고 여겨지는 것으로 주변인들의 부정적인 평가를 말하며, 전문적인 심리적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한 타인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의미한다[5]. 사회적 낙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최근에 주목받기 시작한 ‘자기낙인(self-stigma)’은 상담 및 심리치료 등의 심리적 서비스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사회가 부여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인이 내재화하는 것으로서, 이는 자신이 상담을 받는 것에 대해 스스로를 열등하고 부적절하며 허약하다고 지각하게 한다[10]. 즉 자기낙인은 개인이 사회적 낙인, 고정관념에 의해 자신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스스로 명명하고 자기존중감, 자기효능감을 낮게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1].

선행연구들에서는 사회적 낙인과 자기낙인은 전문적 도움 추구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21-23], 이는 사회적 낙인과 자기 낙인이 상담 추구태도를 억제 또는 저해함을 의미한다. 또한 심리적 문제가 있는 것을 낙인으로 지각하는 사람들은 심리상담 서비스를 덜 이용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으며, 특히 자기 낙인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상담서비스를 받는 것을 포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과 자기 낙인, 사회적 낙인은 모두 도움을 추구하는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에도 상담서비스를 찾지 못하게 하고 상담에 임하는 태도와 상담의 효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이 밝혀졌다[24].

## 2. 상담에 대한 기대와 상담 추구태도

### 2.1 변인의 정의

‘상담에 대한 기대(Expectation About Counseling)’란 상담이란 어떤 것이고, 내담자 자신과 상담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기대하며 상담에 접근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기대란 이전의 경험, 현재의 상황, 또는 어떤 정보에 기초하여 미래의 결과에 대해 갖는 예상을 의미한다[25].

### 2.2 선행연구의 고찰

또한 상담 추구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상담에 대한 기대(Expectation About Counseling)’를 들 수 있다. 사람들은 상담을 받는 것이 자신의 심리적 증상을 경감시킨다고 기대할 때 상담을 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26]. 이러한 상담에 대한 기대는 상담의 시작, 지속적인 과정 및 상담 장면에서 의사소통 과정과 상담 효과에 있어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27]. 특히 상담에 대한 기대를 과약하는 것은, 내담자가 변화하고자 하는 명확한 행동변화와 더불어 상담에 있어 상담자의 역할을 명확하게 알 수 있기에, 상담의 긍정적인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고, 결과적으로 내담자의 문제해결에 있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상담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내담자는 크게 실망하게 되고 이는 상담의 조기종결을 가져 올 것이다[15].

즉 여기에서 상담에 대한 기대는 상담 상황에서 내담자와 상담자의 사고와 행동을 결정하고 상담 전반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며, 성공적인 상담결과를 가장 잘 예언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왔다[28]. 특히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기대를 과약하는 것은, 내담자가 변화하고자 하는 명확한 행동변화와 더불어 상담에 있어 상담자의 역할을 명확하게 알 수 있기에, 상담의 긍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15]를 통해서도 상담 추구태도와 관련성이 깊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상담에 대한 기대가 실제 상담 추구태도를 향상시키는 주요 변인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연구에서 금명자와 이장호[29]는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기대가 상담을 추구하는 태도와 행동을 결정한다는 결과를 얻은 바 있으며, 장유진과 최보영[13]의 연구에서 상담서비스 이용여부를 유의미하게 예언하는 변인으로 상담효과에 대한 기대를 밝혀낸 바 있다. 그러나 상담 추구태도와 상담에 대한 기대의 관련성에 대한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행 연구들은 이들 변인들에 대해 소홀히 다루어져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서 예상하는 바와 같이 상담을 받음으로써 발생할 결과에 대해 개인이 어떤 기대나 결과를 예측하느냐에 따라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 여

부를 결정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Vogel 등[26]에 따르면 상담의 효과에 대한 기대는 상담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상담의 부작용에 대한 예상은 상담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에서는 상담에 대한 기대가 실제 상담 추구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또한 상담 추구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회피 요인으로 밝혀진 자기낙인 및 사회적 낙인과 상담에 대한 기대가 어떠한 관계 속에서 실제 상담 추구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도 소재 4년제 대학인 H 및 H 대학에 재학 중인 남녀 학생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집단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344부가 회수되었으나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였거나 응답이 누락된 17부가 제외되어 최종적으로 327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자 분포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 167명(51.1%), 여학생 160명(48.9%)이었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학년별 분포를 살펴보면, 1학년 108명(32.7%), 2학년 83명(25.4%), 3학년 59명(18%), 4학년 77명(23.5%)으로 전체 학년이 유사하게 분포되어 있으나, 타 학년에 비해 3학년 학생의 비율이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측정도구

##### 2.1 사회적 낙인 척도

상담 추구태도와 관련하여 사회적 낙인을 측정하고자 Komiya, Good과 Sherrod[23]가 개발하고 이민지와 손은정[15]이 한국어로 번안한 지각된 사회적 낙인 척도(Stigma Scale for Receiving Psychological Help : SSRPH)를 사용하였다. Komiya 등[23]이 개발한 사회적 낙인 척도는 상담과 같은 도움을 받는 것과 관련하

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개인이 지각한 사회적 낙인을 측정하는 것으로,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0점(매우 불일치)에서 3점(매우 일치)으로 이루어진 Likert 척도 상에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문항의 한 예는 “어떤 사람이 상담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람들은 상담받는 그 사람을 덜 우호적으로 볼 것이다”이다. 이때 높은 점수는 상담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 사회적 낙인을 더 많이 지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Komiya 등[23]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  계수 .72였고 국내 연구 중 이민지 등[22]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계수 .78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74로 나타났다.

##### 2.2 자기낙인 척도

자기낙인을 측정하기 위해 Vogel, Wade와 Haake[21]가 개발한 도움 추구하고 관련된 자기낙인 척도(Self-Stigma of Seeking Help Scale : SSOSH)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제작되었으며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개의 역채점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민지와 손은정[22]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고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의 Likert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문항의 한 예는 “심리적 도움을 받기 위해 상담자를 찾아간다면 나 자신이 부적절하다고 느낄 것 같다”이다. 이때 높은 점수를 받을수록 자기낙인을 더 많이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Vogel 등[17]의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1이었고, 이민지와 손은정[15]의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0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는 .77로 나타났다.

##### 2.3 상담에 대한 기대 척도

상담에 대한 기대를 측정하기 위해 Tinsley[25]가 개발한 상담에 대한 기대감 질문지(Expectation About Counseling : EAC)를 다시 박애선[30]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5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의 Likert 척도 상에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문항의 한 예는 “나는 처음에 도움을 받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몇 주

는 더 상담을 받고 싶다”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기대감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임을 나타낸다. 박애선의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 )는 .86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 )는 .97이었다.

### 2.4 상담 추구태도 척도

상담 추구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Fisher와 Turner[31]가 개발한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 척도(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Scale) 29문항을 Fisher와 Farina[32]가 다시 총 10문항으로 수정·단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Fisher 등[31]에 따르면 기존 29개 문항의 경우 4개의 하위척도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기타 다른 연구에서도 기존 29개 문항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한 바가 있다[31][3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정된 10문항 단축형 척도를 국내 연구에서 유성경[34]이 번역하고 신연희[36]가 수정하여 사용한 수정된 10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단축형 척도는 기존 척도에서 낙인 내인성과 대인관계 개방성 요인이 제외되었고 상담에 대한 신뢰와 상담의 필요성 인식 2가지 차원으로 상담 추구태도를 측정하고 있다. 각 문항에 대해 자신의 도움 추구태도를 잘 나타내는 정도는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4점 (매우 그렇다)의 Likert척도 상에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문항의 한 예는 “만약 내가 현재 심각한 정서적인 위기를 겪고 있다면 상담으로 안정을 찾을 것 이라고 확신한다” 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상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분석 결과 이미경[7]의 연구에서는 Cronbach'  $\alpha$  계수 .74였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65로 나타났다.

###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낙인, 자기 낙인과 상담에 대한 기대 및 상담 추구태도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먼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사회적 낙인과 자기 낙인이 상담 추구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상담에 대한 기대가 매개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35]가 제시한 절차에 따라 회귀분석 및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자료 분석을 위해서는 SPSS 17.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사회적 낙인, 자기 낙인, 상담에 대한 기대 및 상담 추구태도의 관계

먼저 사회적 낙인, 자기 낙인, 상담에 대한 기대 및 상담추태도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 변인 간 단순 상관계수,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여 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변인간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분석 결과

	1.사회적 낙인	2.자기 낙인	3.상담 기대	4. 상담 추구태도
1	—			
2	.42***	—		
3	.02	-.25***	—	
4	-.15**	-.45***	.32***	—
M	2.22	2.50	3.75	2.64
SD	.49	.50	.55	.36

\*\* $\alpha$ .01, \*\*\* $\alpha$ .001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적 낙인은 상담 추구태도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 $r = -.15, p < .01$ )을 나타냈고 상담에 대한 기대와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 $r = .02, ns$ ). 한편 자기낙인은 상담에 대한 기대( $r = -.25, p < .001$ ) 및 상담 추구태도( $r = -.45, p < .001$ )에서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상담에 대한 기대와 상담 추구태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r = .32, p < .001$ ). 이는 상담을 받음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사회적 낙인과 자기낙인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높을수록 상담 추구태도가 감소하지만, 상담에 대한 기대와 관련해서는 자기 낙인에 대한 불안을 크게 지각할 때에만 상담에 대한 기대가 더 낮아짐을 시사한다. 즉 상담을 받음으로써 생길 수 있는 주변사람들의 부정적인 평가에 민감할수록, 그리고 상담을 받는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가 부정적일수록 상담에 대해 더 비호적 태도를 가지게 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상담을 받음으로써 생기는 자기평가가 부정적일수록 상담에 대한 기

태도 적어지며, 상담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상담을 받으려고 하는 태도가 보다 긍정적임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연구문제 1의 결과를 확인하였다.

## 2. 자기낙인과 상담 추구태도의 관계에서 상담에 대한 기대의 매개역할

다음으로 사회적 낙인, 자기낙인과 상담 추구태도와 의 관계에서 상담에 대한 기대의 매개역할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Baron과 Kenny[35]의 절차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들에 의하면, 매개효과가 있다고 증명하기 위해서는 세 단계의 회귀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먼저 독립변인(예언변인)이 종속변인(준거변인)을 유의하게 예언해야 하고(절차 1),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유의하게 예언해야 한다(절차 2), 그리고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동시에 종속변인을 예언하도록 하는 회귀분석에서는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을 유의하게 예언하면서 단계 1의 독립변인의 효과가 유의하게 줄어들어야 한다(절차 3). 이때 매개효과는 완전매개와 부분(불완전)매개로 나뉘어지는데 완전매개는 3단계에서 종속변인에 대한 매개변인의 영향력이 유의하면서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부분(불완전)매개는 3단계에서 종속변인에 대한 매개변인의 영향력이 유의하면서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력도 유의미한 경우를 말한다[36].

### 2.1 자기낙인과 상담 추구태도와의 관계

앞서 [표 1]의 상관분석 결과, 사회적 낙인은 상담추구 태도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상담에 대한 기대와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은 바, 본 연구에서는 자기낙인이 상담 추구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상담에 대한 기대에 의해 매개되는 과정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때 자기낙인과 상담추구 태도 및 상담에 대한 기대와의 관계에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상담 추구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낙인의 설명력을 알아보하고자 자기낙인을 예언변인으로 하고 상담 추구태

도를 준거변인으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였고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절차 1)

표 2. 상담추구 태도에 대한 자기낙인의 회귀분석 결과

예언 변인	$\beta$	t	$R^2$	F	준거변인
자기낙인	-.45	-9.04***	.20	81.77***	상담추구 태도

\*\*\* p<.001

[표 2]에서 상담 추구태도에 대한 자기낙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되었으며( $\beta = -.45, p<.001$ ), 설명하는 변량은 20%였다. 즉 상담을 받음으로 인해 생기는 자기낙인에 대한 염려가 실제 대학생들이 상담을 찾아오도록 하는 상담 추구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예언력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이로써 Baron과 Kenny의 방식에 따른 매개효과 검증의 첫 번째 절차가 만족되었다.

### 2.2 자기낙인과 상담에 대한 기대와의 관계

이어서 상담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낙인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자기낙인을 예언변인으로 하고 상담에 대한 기대를 매개(준거)변인으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절차 2).

표 3. 상담 기대에 대한 자기낙인의 회귀분석 결과

예언 변인	$\beta$	t	$R^2$	F	매개변인
자기낙인	-.25	-4.65***	.06	6.21***	상담에 대한 기대

\*\*\* p<.001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기낙인이 상담에 대한 기대를 통계적으로 예언하고 있었다( $\beta = .25, p<.001$ ). 이는 상담을 받음으로써 경험하는 자기 낙인에 대한 염려가 실제로 상담에 대한 기대를 감소시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예언력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이로써 Baron과 Kenny의 방식에 따른 매개효과 검증의 두 번째 절차가 만족되었다.

2.3 자기낙인이 상담 추구태도에 미치는 영향

: 상담에 대한 기대의 매개역할

이어서 Baron과 Kenny[35]가 제시한 세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자기 낙인과 상담에 대한 기대를 예언변인 군으로 하고 준거변인인 상담추구 태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절차 3).

표 4. 상담 추구태도에 대한 자기낙인과 상담기대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예언변인	$\beta$	t	$R^2$	$\Delta R^2$	F change
단계 1			.20	.20	81.77***
자기낙인	-.45	-9.04***			
단계 2			.25	.05	19.25***
자기낙인	-.39	-7.91***			
상담에 대한 기대	.22	4.39***			

\*\*\*p<.001

[표 4]를 보면, 상담에 대한 기대가 자기낙인과 상담 추구 태도 간의 관계에서 작용하는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매개변인인 상담에 대한 기대를 추가하였을 때, 단계 2에서 독립변인인 자기낙인이 종속변인인 상담추구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그 영향력은 감소하였고, 매개변인인 상담에 대한 기대는 상담 추구태도에 여전히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22, p<.001$ ). 이에 자기낙인과 상담 추구태도 간의 관계에서 상담에 대한 기대는 부분적으로 매개함을 알 수 있다. 이때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상담에 대한 기대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Z= -3.82, p<.001$ ). 따라서 자기낙인과 상담 추구태도와의 관계에서 상담에 대한 기대가 부분 매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Baron과 Kenny의 방식에 따른 매개효과 검증의 세 번째 절차도 만족되었으며, 연구문제 2의 결과가 지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사회적 낙인과 자기낙인이 상담 추구태도

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상담에 대한 기대가 매개하는지를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연구결과와 시사점 등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낙인, 자기낙인과 상담에 대한 기대 및 상담 추구태도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결과, 사회적 낙인과 상담 추구태도, 자기낙인과 상담 추구태도는 각각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사회적 낙인과 자기 낙인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높을수록 상담 추구태도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상담을 받음으로써 생길 수 있는 주변사람들의 부정적인 평가에 민감할수록, 그리고 상담을 받는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가 부정적일수록 상담에 대해 덜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게 됨을 알 수 있다. 사회적 낙인과 자기낙인은 전문적 도움 추구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21-23]. 이어서 사회적 낙인, 자기낙인과 상담에 대한 기대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자기낙인은 상담에 대한 기대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낸 반면, 사회적 낙인과 상담에 대한 기대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상담을 받을 때의 자기낙인에 대한 불안을 크게 지각할수록 상담에 대한 기대가 더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상담을 받음으로써 주변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는 부정적 평가와 상담의 기대와는 관련성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를 통해 자기낙인에 대한 불안을 크게 지각할 때에만 상담에 대한 기대가 더 낮아짐을 확인하였고, 사회적 낙인 즉, 상담을 받음으로써 겪는 사회적인 부정적 평가와 상담에 대한 기대와는 관련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낙인은 전문적 도움이나 상담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5][22], 상담에 대한 기대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일부 확인하였다[27].

이러한 결과는 최희철[20]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상담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를 갖게 되면, 상담을 추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결과로 인해 자기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거나 또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의존적인 사람으로 보이는 것 등을 고려하여 결국에는 상담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덜 호

의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볼 때 상담을 받는 것과 관련해 자신이 받을 부정적인 평가보다는, 상담을 받는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부정적 평가나 편견이 상담에 대한 기대를 낮추고, 결국 상담서비스를 추구하는 태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의 낙인에 대한 연구는 상담 및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을 설명하는데 있어 낙인을 높게 지각할수록 전문적 도움이나 상담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일관되어 보여주고 있으며, 자의에 의해서 상담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상담에 대한 낙인에 의해 상담에 대한 기대가 영향을 받게 됨을 알 수 있다[27]. 즉 낙인과 상담에 대한 기대는 상담에 있어서의 내담자의 태도와 행동 및 상담의 지속성, 상담의 효과성 등에도 영향을 주는 바, 상담과정의 중요한 변인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직접적으로 상담의 추구태도와도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의 주요 연구문제로 설정한 낙인과 상담 추구태도와의 관계에서 상담에 대한 기대의 매개역할을 알아본 결과, 자기낙인이 상담 추구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상담에 대한 기대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을 받는 것 자체가 도움을 추구하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작용하여 내면화된 자기개념과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을 낮추는 것으로 인식되어 상담에 대한 기대와 상담을 받으려는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간접적으로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37]. 또한 이 결과는, 사람들은 상담을 받는 것이 자신의 심리적 증상을 경감시킨다고 기대할 때에 비로소 상담을 추구할 것인데[26],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기대를 향상시킴으로써 상담의 긍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노희순등[15]의 연구결과와도 간접적으로 그 맥을 같이 하는 결과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낙인과 상담에 대한 기대 및 상담 추구태도와의 유의관한 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 연구 등에서 다소 일치하는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었다. Vogel 등[21]에 따르면 자기낙인이 도움 추구태도를 설명하는데 있어 사회적 낙인

등의 다른 변인들보다 훨씬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도움 추구태도나 의도를 더 잘 예측한다고 밝힌 결과를 통해서도 자기낙인과 상담 추구태도와도 관련성을 짐작할 수 있다는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반면 노희순 등[15]의 국내 연구결과에서는 사회적 낙인과 상담에 대한 기대간의 유의한 부적관계가 나타남으로써 본 연구결과와는 불일치하는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 선행연구들의 상반되는 연구결과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가 갖는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낙인과 자기낙인은 상담 추구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함과 동시에, 구체적으로 각 낙인이 상담에 이르는 과정에 일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집단주의 문화에 속하는 아시아권 국가의 내담자들이 상담서비스를 더 적게 이용하는 이유를 설명할 때 사회적 낙인의 중요성을 강조되는 연구 결과임을 시사하고 있었으나[38][39], 본 연구 결과에서는 사회적 낙인에 비해 자기낙인의 효과가 상담 추구태도와 더 부정적인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회적 낙인이 단순히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편견이라는 측면을 보여준 것이라면, 자기낙인은 사회적 낙인을 다시 내재화하여 나타나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써 개인이 이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후 상담 서비스를 추구하는 개인의 태도에 보다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낙인과 상담 추구태도, 상담에 대한 기대와의 관련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간과하였던 자기낙인과 상담 추구태도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실제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담 추구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각 개인이 지닌 심리·정서적 문제의 인식이나 그 심각성보다는 오히려 개인이 경험하는 낙인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이 과정에서 상담에 대한 기대 또는 기대이득이 중요한 매개변인으로 작용함을 밝힘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문제인식에도 불구하고 실제 도움 추구를 하지 않는 상담 서비스 격차를 설명할 수 있

는 요인들의 일부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무엇보다 이와 같은 변인들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상담 서비스 이용에 대한 태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개입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즉 자기 낙인에 대한 스스로의 부정적 평가에 노출되어 있더라도 상담을 통해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이득이나 직간접적으로 그 효과를 경험할 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확인한 바, 상담의 대중화를 통해 보다 상담의 효과에 대한 기대를 증진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심리적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망설이지 않고 상담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상담과 같은 전문적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식을 개개인 이 내면화하는 과정에 대한 차별화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40].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낙인과 사회적 낙인이 상담 추구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그 과정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매개변인으로 상담에 대한 기대만을 상정하여 사회적 낙인이 상담 추구태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한 변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다양한 개인 내적 변인 등을 고려하여 자기낙인과 사회적 낙인 각각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도 소재 대학생만을 임의표집(convenient sampling)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대상을 전국적으로 표집함으로써 청소년, 대학생, 성인 등 대상 집단별 차이를 밝히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면접이나 종단적 연구 등 다양한 연구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어지는 후속연구에서는 상담 추구태도와 관련한 내담자의 상담요청 결정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을 통해 기존 연구에서 간과한 개인의 내적 낙인의 부정적 효과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를 상담서비스 이용으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추후연구를 제안한다.

## 참고 문헌

- [1] M. E. Stefl and D. C. Prosperi, "Barriers to mental health service utilization,"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Vol.21, pp.167-178, 1985.
- [2] S. K. Nam, S. I. Choi, J. H. Lee, M. K. Lee, A. R. Kim, and S. M. Lee, "Psychological factors in college students' 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A meta analysis,"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Vol.44, No.1, pp.37-45, 2013.
- [3] 신연희, 안현의, "전문적 도움추구 행동에서 접근 요인과 회피요인이 상대적 중요성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7권, 제1호, pp.177-195, 2005.
- [4] F. T. L. Leong and P. Zachar, "Gender and options about mental illness as predictors of 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British Journal of Guidance and Counselling*, Vol.27, pp.12-132, 1999.
- [5] D. L. Vogel, N. G. Wade, and A. H. Hackler, "Perceived public stigma and the willingness to seeking counseling: The mediating roles of self-stigma and attitudes toward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54, pp.40-50, 2007.
- [6] M. G. Kushner and K. J. Sher, "The relation of treatment fearfulness and psychological service utilization: An overview,"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Vol.22, No.3, pp.196-203, 1991.
- [7] 이미경, *상담에 대한 양가태도 집단의 특성 분석*,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8] M. Rutter and L. A. Srouf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Concepts & Challeng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Vol.12, pp.265-296, 2000.
- [9] 최정아,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전문적 도움 요청 태도 간의 경로 검증,"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

- 술대회논문집, pp.285-286, 2015.
- [10] P. W. Corrigan, "How stigma interferes with mental health care," *American Psychologist*, Vol.59, No.7, pp.614-625, 2004.
- [11] 최상진, 유승엽, "한국인의 체면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한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6권, 제2호, pp.137-157, 1992.
- [12] D. L. Vogel and S. R. Wester, "To seek help or not to seek help: The risks of self-disclosur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50, No.3, pp.351-361, 2003.
- [13] 장유진, 최보영,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심리적 변인이 상담 서비스 이용 여부에 미치는 영향," *교육방법연구*, 제23권, 제1호, pp.151-173, 2011.
- [14] 김주미, 유성경, "전문적 도움추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문화적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4권, pp.991-1002, 2002.
- [15] 노희순, 남숙경, "부모가 지각한 아동문제와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와의 관계에서 사회낙인과 상담에 대한 기대이득의 매개역할: 거제지역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제14권, 제6호, pp.3769-3784, 2013.
- [16] G. M. Morrison, J. Laughlin, S. San Miguel, D. C. Smith, and K. Widaman, "Sources of support for School-related issu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26, No.2, pp.233-252, 1997.
- [17] M. G. Kushner and K. J. Sher, "Fear of psychological treatment and its relation to mental health,"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Vol.20, pp.251-257, 1989.
- [18] P. W. Link and J. C. Phelan, "Conceptualizing stigma,"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27, pp.363-385, 2001.
- [19] 송해룡, 김원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공중의 신뢰, 낙인과 낙관적 편향성이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3호, pp.162-173, 2013.
- [20] 최희철, *계획적 행동 이론을 적용한 상담추구 의도 예측 모형*,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 [21] D. L. Vogel, N. G. Wade, and S. Haakes, "Measuring the self-stigma associated with seeking psychological help,"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53, pp.325-337, 2006.
- [22] 이민지, 손민정, "낙인과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 간의 관계: 전문적 도움추구태도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9권, 제4호, pp.949-966, 2007.
- [23] N. Komiya, G. E. Good, and N. B. Sherrod, "Emotional openness as a predictor of college students attitudes toward seeking psychological help,"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47, No.1, pp.138-143, 2000.
- [24] 오일영, *대학생의 자기낙인과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 자기고향 편향의 중재효과*,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25] D. J. Tinsley and H. E. A. Harris, "client expectation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23, pp.173-177, 1976.
- [26] D. L. Vogel and M. Wei, "Adult attachment and help-seeking intend: The mediating roles of psychological distress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52, pp.347-357, 2005.
- [27] 김미숙, 윤선미, "청소년 내담자의 상담에 대한 낙인, 기대, 비자발성, 심리적 반발심의 구조적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2권, 제2권, pp.301-328, 2010
- [28] Garfield, *Research on client variables in psychotherapy*, In S. L. Garfield & A. E. Bergin(Eds.), *Handbook of psychotherapy and behavior change* (4th. ed.), pp.190-228, 1994
- [29] 금명자, 이장호, "상담자에 대한 내담자의 기대,"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3권, pp.23-43, 1990.

- [30] 박애선,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기대감에 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31] E. H. Fischer and J. L. Turner, "Development and research utility of attitude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35, pp.79-90, 1970.
- [32] E. H. Fischer and A. Farina, "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A shortened form and considerations for research,"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Vol.36, pp.368-373, 1995.
- [33] 유성경, "한국 대학생의 상담, 심리치료, 정신치료에 대한 태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7권, 제3호, pp.617-632, 2005.
- [34] 유성경, "우울의 표현 및 상담에 대한 태도에 관한 문화간 비교연구: 한국 대학생과 미국 대학생 간의 비교," *청소년상담연구*, 제6권, pp.93-114, 1998.
- [35] R. M. Baron and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s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1, No.6, pp.1173-1182, 1986.
- [36] 김현순, 김병석, "자아존중감이 노인의 스트레스와 우울에 미치는 매개효과," *한국노년학*, 제27권, 제1호, pp.23-37, 2007.
- [37] P. E. Holes and L. P. River, "Individual strategies for coping with the stigma of severe mental illness," *Cognitive and Behavior Practice*, Vol.5, No.2, pp.231-239, 1998.
- [38] D. W. Sue, "Asian-American mental health and help-seeking behavior," *Comment on Solberg et. al. (1994), Tata and Leong (1994)*,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41, pp.292-295, 1994.
- [39] J. Ting and W. Hwang, "Cultural influences on help-seeking attitudes in Asian American student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Vol.79, pp.125-132, 2009.

- [40] 정진철, 양난미, "낙인과 자존감, 전문적 도움 추구태도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2권, 제3호, pp.631-652, 2010.

#### 저 자 소 개

김 정 수(Jung-Soo Kim)

정회원



- 2008년 8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박사)
- 2009년 3월 ~ 현재 :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연구교수

<관심분야> : 낙관성, 대학생 적응, 청소년상담, 소명